



강원도에서 시간 여행



이채린 · 대구 영신초등학교 2학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 이번 우리 휴가지는 강원도이다.

룰루랄라! 처음 도착지는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이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한반도 자연 환경에 대해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었다. 평소에 무서워서 공룡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삼엽충 화석을 만져 보고, 모형을 작동시켜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태백시가 예전에는 얇은 바다였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다음날에는 레일 바이크를 탔다. 그 길은 옛날에 석탄을 나르던 기차가 다니던 길이라고 했다. 어제 봤던 식물 중 일부가 오랜 시간을 거쳐 석탄이 되고, 그 석탄을 나르던 길 위에 내가 바이크를 탄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엄마가 “우리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엄마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셨나 보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태백을 떠나 우리는 속초로 갔다.

보기에도 멋지고 아름다운 설악산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창밖으로 산꼭대기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보았다. 비 온 후에만 볼 수 있다는 토왕성 폭포이다. 정말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금방이라도 산신령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백처럼 설악산도 옛날에는 바다였을까? 생각하니 재미있기도 하였다.

우리 가족은 등산을 좋아하지만, 도착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케이블카를 탔다. 케이블카 순서를 기다리며 엄마가 케이블카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케이블카를 세우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 파괴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봐도 케이블카 승강장, 중간 중간에 놓인 기둥,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자연을 많이 오염시킬 것 같다. 설악산 반달곰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설악산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드론은 어떨까? 자동차처럼 탈 수 있는 드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드론에 간식이랑 쓰레기통을 싣고 설악산 구경을 하는 것이다. 드론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광 에너지이다.

태백에서 나는 과거와 현재의 한반도가 재미있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속초에서 나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도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을지 고민했다.

다음에 설악산에 올 때는 등산을 하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겠다.